

【 2017.6.15(목)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5일 오후
5시 정선국토관
리사무소에서
열리는 지역 건
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현
안에 대해 논의.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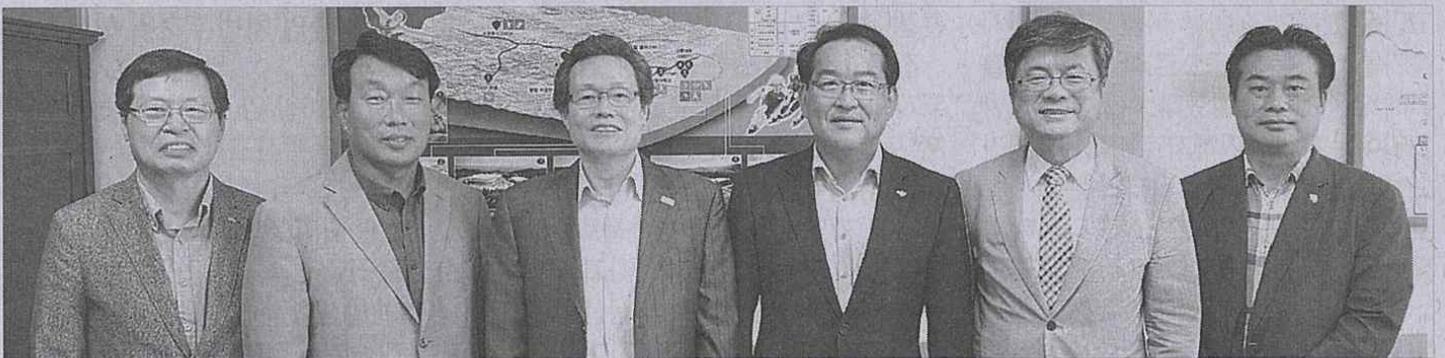
오후 5시 정선국토
관리사무소에서 열
리는 강원도 건설산
업발전을 위한 간담
회에 참석한다.

도 건설업 입찰 늘고 수주액은 감소

올해들어 강원도내 건설수주 건수는 늘
은 반면 수주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14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
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 건설사들
의 사업 입찰건수는 876건으로 지난해 같
은기간(729건)보다 20.1%(147건) 늘었
다. 반면 건설수주액은 지난 1월부터 5월
까지 5641억4273만여원으로 전년동기
(6313억3809만여원)보다 10.6%(671억
9536만여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소규모 공사
가 많았던 반면 도로, 항만, 철도 등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관련 예산이 줄
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건설협회 관
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들이
마무리되면서 수주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올림픽 조직위 건설산업 발전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오인철 회장은 14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 올림픽 성공개최와 강원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건협 강원도회, 평창 올림픽 조직위 방문... 협력 방안 논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사진)는 14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했다. 도회는 2018 평창동

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강원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조직위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오인철 도회 회장은 15일 정선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